

# 산림가꾸기 투자운동

마 상 규 / 임업기계훈련원장

## 1. 우리산림은 미래의 땅

우리 산림은 아직은 어린나무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와 민족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은 미미하다 할 수 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산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아 기대한 만큼 산림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우리미래를 위해 이는 불행한 일이다.

우리 선조들도 독일과 스위스 사람들처럼 현명하게 가꾸어 왔다면 새삼 산림가꾸기 투자가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다. 노령목을 베어 팔아서 남은 돈으로 산림을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네 사정은 그렇지 못하고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붉은산을 푸르게 만드느라 오랜세월을 보내고 지금은 이를 가꾸느라 모진 고생을 하고있는 중이다.

우리산림은 이제 청년기까지 자라왔다. 잠재력도 우수한 곳이다. 그래서 자식에게 공부를 잘 시키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준다면 우수한 일꾼이 될수 있는 것과 같이 산림가꾸기를 하면 기둥감을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땅도 좋아져가고 값비싼 수종도 다양하며 기후조건도 좋아 오히려 유럽지방보다 생장이 좋은 곳이 우리 산림시대이다. 청년기인 우리산림을 잘 가꾼다면 21세기 전반기에 가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재	미	래
축적변화	40m <sup>3</sup> /ha	300m <sup>3</sup> /ha	
연간목재공급	0.2m <sup>3</sup> /ha	4m <sup>3</sup> /ha	
환경보호효과	100%	500%	
산림휴양효과	100%	3000%	
국민고용효과	100%	20000%	

근래 독일과 스위스에서 산림조사를 한 바 ha당 축적이 300m<sup>3</sup>/ha이상이 되어있고, 목재공급량은 4m<sup>3</sup>/ha인데 이를 5-6m<sup>3</sup>/ha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과 경영기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결코 목재생장을 위한 자연조건이 좋다고 볼수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지 않은가.

우리자연과 역사는 이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햇빛은 붉은땅을 녹화시켜 성공한 나라이다. 나무가 자랄 수 없을 것이라는 사방조림지를 가서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알게된다. 서울근교의 참나무와 아카시나무의 생장을 보면 미래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의 목재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환경보호 압력으로 옛날식으로 목재를 벨 수도 없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수입 목재가격의 폭등이다. 우리나라 나무는 자라나고 있다. 그러나 가꾸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 2. 교육과 산림은 미래를 위한 투자대상

교육은 국가 백년 대계하에서 투자를 한다. 민족의 장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산림도 다를 바 없다. 국토의 장래가 걸려있

기 때문이다.

우선 산림을 잘 가꾸고 있다는 독일 헛센주와 한국의 국유림에서 *ha*당 노동투자시간과 비용을 비교하기로 하자.

표1. 양국 국유림 투자사례 비교

사 업 별	<i>ha</i> 당 노동투자시간(시 / <i>ha</i> )		<i>ha</i> 당 노동비용		비 고
	한 국	독일헛센주	한 국	독일헛센주	
갱 신 하 예	1.4	1.9	(원 / <i>ha</i> )	(DM / <i>ha</i> )	
산 립 보 호	0.6	0.9	3.92	32.22	
임 도 보 수	0.2	0.2	1675	14.14	
목 재 수 확	0.2	0.2	387	2.45	
산 립 보 육	1.0	3.2	2730	76.76	
야 생 동 물 관 리	4.0	1.2	10.945	23.82	
산림휴양풍치관리	-	0.3	-	4.40	
작업구분이곤란	-	0.1	-	1.13	
기 타	0.4	1.9	1135	30.66	
계	7.6*1	9.7	20.792	185.58	

\*자료원 : 한국——'92년 시책  
독일——'88년도 연보

\*1: 정부 1일 단가 기준으로 환산(실 투자시간은 4.2시간)

한국 국유림과 독일 헛센주 국유림과 비교 시 노동투자시간은 2/3, 노동비는 1/4수준에 있다. 한국의 경우는 산림보육(산림가꾸기)과 갱신에 작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반면에 독일에서는 목재수확과 갱신에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만일 독일과 같은 노동투자를 하고, 이를 현실비용으로 환산을 하여 투자를 한다면 얼마가 있어야 할 것인가.

1*ha*당 연투자 노동시간 : 9.7시간

1일 현실노임 : 39,420원(21,900원×1.8)

1*ha*당 연투자 현실임금 : 47,797원

전국경영대상지 임금투자 규모 : 2390억원(500만*ha* 기준)

이뜻은 연간 2,390억원의 노임투자가 있

다면 독일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임업기계훈련원 실습림경영에 의하면 400*ha*당 1인의 전문작업단원이 필요하였다. 경험사례를 가지고 노임투자 규모를 환산해 보면,

- 경영대상면적 : 500만*ha*

- 소요인력 : 12,500인(500만*ha*÷400*ha*)

- 1인당 연간 노동지불액 : 1천만원

- 총노동비용 : 1,250억원(500만*ha* 기준)

- *ha*당 노임노동 투자비 : 25,000원/*ha*

이는 육림단계에 있는 한국의 산림을 가꾸기 위해 연간 1,250억원을 투자하면 독일의 산림과 같이 우리의 산림도 미래의 산업기지로 만들수 있음을 뜻한다.

### 3. 투자는 누가

독일의 경우는 굵고 큰나무가 있어 이를 베어 팔면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ha당 겨우 0.2m<sup>3</sup> 정도를 생산하므로 노동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들면 :

- ha당 노동투자 희망액 25,000원/ha
- ha당 목재생산과 판매비 : 10,000원(0.2m<sup>3</sup>/ha)
- 부족액 : -15,000원/ha

이 뜻은 현수준에서 수확한 목재를 팔아서 산림가꾸기 비용으로 재투자를 하더라도 ha당 15,000원 전국적으로 750억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국유림과 공유림은 당연히 국가와 공동단체에서 투자할 성질이나 여기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사유림이다. 사유림의 산림면적이 전체의 4/5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유림에 대한 투자는 산주만이 책임질 성질인가 아니면 누가 지원을 하여야 할 성질인가. 먼저 산림의 기능을 알아보고 해답을 찾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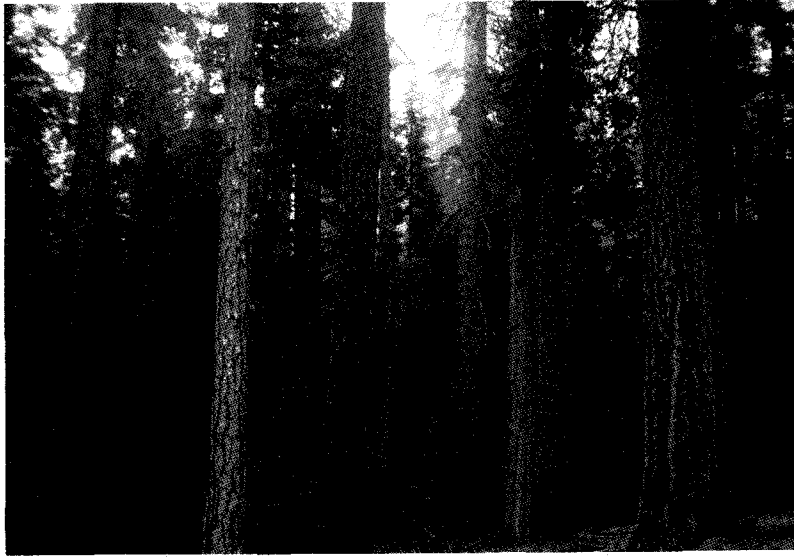
표2에서 보면 산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소득과 재산기능 정도이고 나머지 모두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사유림의 산림은 경제개념에서 보면 거시경제대상이지 미시경제로 볼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산주의 의식을 보면 산지에 관심이 있지 그위에서 자라고 있는 숲에 대한 관심은 낮은게 사실이다. 묘지터로서 관심을 갖고있고, 근래에는 부동산으로 가치를 더 인정하고 있지 숲에대한 가치인식이 낮아 산림투자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산림사적으로 보아 숲으로부터 소득과 재산기능을 행사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험도 없었다. 도벌과 중간상인들의 남벌, 병충해와 산화등에 의한 피해때문에 소득의 기능도 낮았을 뿐 아니라 자기산에 가서 땀나뭇을 하고 싶어도 제한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기능으로도 인식시키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산주들이 산림투자에 대한 의식이 발달할 리가 없

표2. 산림의 기능별 이익의 주체

사유림의 산림기능	이	익
	산 주	국가, 국민
-경제적 기능		
• 원료공급	-	○
• 국민고용	-	○
• 소득(△는 세금소득)	○	△
• 재 산	○	-
-환경보호		
• 국토보호(홍수조절, 산사태, 토양보전등)	-	○
• 국민건강보호(기후조절, 산소공급, 공기정화, 맑은물등)	-	○
-생태계 보호(다양한 종 보존)	-	○
-산림휴양		
• 국민휴양	-	○
• 산림풍치관광	-	○



었다.

비록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법적으로는 개인재산임에 틀림이 없으나 자연 그대로 방치하였던 숲이라 형질이 좋지않고 임도등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실제 원목가는 얼마되지 않게 현실이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소경재 1m<sup>3</sup> 생산시 시장가는 5만여원이나 수확비용은 3만여원이 되고, 남은돈 2만원으로 조림 인건비와 하에 그리고 보육인건비를 지불한다면 실제 산주에게 돌아가는 소득기능은 얼마되지 않는것이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산주들에게 산림 투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반면, 국가경제와 국토환경 보호상 나무는 심고 가꾸어 주어야 한다. 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결국 산지는 개인재산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라고 있는 숲은 민족 재산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거시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산주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토지를 대여해 준 대

신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4. 1천억 노동투자가 필요한 시기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문경영자도 필요하고, 전문작업원도 필요하다. 전문경영자급은 국가 또는 지방 산림공무원과 지도기관의 지도사들을 전문경영자로 재훈련을 시키면 되므로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전문작업원의 노동력확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현 단계에서 우리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12,500명이 필요하고 이들의 임금으로 연간 1,250억원이 필요로함을 설명한바 있다.

왜 우리산림은 1천억 노동투자운동이 필요한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산림을 가꾸는 것은 인간의 교육과정과 다를바 없다. 최초에는 어린묘목을 ha당 3,000본을 심으나 최종적으로 남아 수확하

게 될 기동감은 150-400분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쓸모없는 나무들을 솎아내고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흔히 산림은 자연그대로 두지, 불필요하게 돈을 들이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숲을 가꿀시와 가꾸어주지 않고 자연그대로 두었을시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목재의 생산가치가 하락한다. 표 3은 가꿀시와 가꾸지 않았을시의 목재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표3. 산림을 가꿀때와 가꾸지 않을때의 목재가치의 비교

구 분	가 꾸 숲	가꾸지 않은 숲	비 고
목재생산비율(%)			
일반용재	68	20	임업기계훈련원 교재
공업원료	32	80	
ha당 연평균생산량(m <sup>3</sup> )			
일반용재	2.04	0.6	
공업원료	0.96	2.4	
계	3.00	3.00	
ha당 목재가치(원)			시가
일반용재 일반	183,000	54,000	m <sup>3</sup> =9,000
공업원료	48,000	120,000	m <sup>3</sup> =5,000
계	231,000	174,000	

표 3의 결과에 의하면 산림을 가꾸므로 ha당 57,600원의 이익이 발생된다. 이는 전 산림경영 대상지 500만ha에 적용하면, 산림을 가꾸므로서 얻은 순이익은 2,880억원에 해당된다. 산림에 1,250억원을 투자하고도 1,630억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산림을 가꾸므로서 소득이 증대됨은 물론 추가로 얻은 이익은,

- 전문인력을 12,500인 고용을 시킬 수 있고, 고용을 통한 소득은 농촌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산림을 건강하게 키우므로 설해와 풍해 및 병충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 산림의 환경보호와능과 서비스기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고급재를 생산하므로 외화절약은 물론 국내 연관산업 발전에 국내재를 공급할 수 있다.

-산림의 소득과 재산기능이 높아지므로 산주들의 의식이 개선된다.

결과적으로 산림은 가꾸어 주어야 하고, 이를 가꾸기 위해 매년 1,000억에 상당하는 노동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산림투자 특히, 사유림에 대한 산림투자가 크게 부족하여 21세기를 향한 산림부국의 길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1,000억 노동투자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때이다.

### 5. 노동투자 확대운동

전술한 바와 같이 이익과 사유때문에 산

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산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동참하는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국토보호 운동이요, 자손들이 잘살기 위한 희생운동이다.

먼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매체를 통해 국민들도 공감하고 정부의 경제관료나 지도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림청을 위시한 학계, 유관기관, 목재회사, 산주등 모든이들이 홍보요원들이 되어야 한다.

먼저 산림분야 홍보본부가 있었으면 한다. 산림지와 산림경영도 질과 내용을 발전시켜야 한다. 통상 각론에 흐르는 내용보다 근본적인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림소년 및 청년활동이 있어야 한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훈련은 느린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빠른길이다. 그래서 국민학교와 중등학교 교과서에도 산림문제가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숲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에게는 농촌 활동봉사를 발전시켜 산림활동 봉사까지 벌려 잡목 솜아주는 일, 산지정화운동, 등산길 정비등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감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산림청소년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셋째, 정부보조금 확대와 산주투자를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면 당연히 국토를 위한

산림투자도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장기투자는 당대의 희생일수도 있으나 자손을 위한 희생은 값진 것이다. 산주의 경우도 20%투자는 선조로서 의무사항이다. 또한 목재통관세 등도 국내자원 가꾸기에 활용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탄소산업체와 목재이용 연관업체들로부터 산림투자의 당위성과 지원책들도 검토하여 만일 지원금이 있을시 산림청소년단 운영, 산림작업단 직업훈련, 해외조림지원 등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익을 얻은만큼 피해를 당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해당하는 일이다.

다섯째, 산림을 국민휴양지 또는 국민과 함께하는 숲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시설과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관광휴양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풍치휴양림 가꾸기 사업에 사용하고, 물세의 일부를 수원함양림 경영에 활용하며, 고향묘지제도 등을 만들어 그 소득으로 고향숲 가꾸는데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자비와 지원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림가꾸기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이 중요한 일이다. 산림가꾸기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댓가는 자신과 후손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면 방법과 수단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어찌하든 국민들이 산림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는 묘안이 강구될 시기이다. 투자없이는 미래의 산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